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

🐦 이야기 2: 작은 새의 도전

푸른 숲 속 높은 나무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어린 새였던 그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. 다른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지만,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.

어느 날, 어미 새는 말했어요. “이제는 날아야 할 때야.” 작은 새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끝에 섰어요.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 높아서 무서웠어요. 그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.

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날개를 펼쳤어요.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고, 바람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. 몇 번이나 날개를 퍼덕였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요.

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다시 도전했어요.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점점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. 결국 어느 순간, 그는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.

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. 작은 새는 웃으며 생각했어요. “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”

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어요.